# 63년만의 졸업 축하…현해탄 넘은 20년 우정

## 광주 찾은 조선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사무국장 고이데 유타카씨

19일 오후 광주를 방문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 유타카 사무국장이 양금덕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일제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해 20여년을 뛰어온 일본인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명예졸업장 수여식 참석을 위해 광주까지 찾는 뜨거운 우정을 보였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지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고이데 유타카(66) 사무국장은 19일 광주를 방문했다. 지원회는 지난 1988년 조선 여자근로정신대 존재 사실을 접한 후 광주·전남지역 근로정신대 피해자 8명과 함께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 근로정신대 할머니 명예졸업장 수여식 참석

### 日정부·미쓰비시사 상대 소송 20년간 지원

유타카 사무국장과 근로정신대 출신인 양금덕(79·광주시 서구 양동), 이유녀(78·광주시 동구 학동) 할머니가 이날 광주 한 호텔에서 만났다. 두 할머니는 20일 모교인 나주초교에서 63년만에 명예 졸업장을 받는다.

두 할머니는 지난 1944년 5월 나주초교 6학년에 재학 중 "일본에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교사의 말에 속아 끌려갔다. 이들은 나고야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기 제작회사에 배치를 받아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혹독한 강제노동에 종사해야 했다.

양 할머니는 "드디어 졸업생이 됐다는 생각에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며 "소송을 도와준 것도 고마운데 현해탄을 넘어와 축하까지 해주니 뭐라 말할 수 없이 고맙다"고 말했다.

유타카씨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당하신 두 할머니가 63년만에 졸업장을 받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지원회와 양 할머니 등 원고 8명은 지난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1인당 3천만엔씩 총 2억4천만엔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6월 1일 나고야 고등재판소가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고와 변호단은 즉각 최고재판소에 상고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유타카씨는 "이번 소송은 한국과 일본의 문제인 만큼 미래 지향적인 관계 향상을 위해서 승소를 위해 뛰겠다"고 전했다.

유타카씨는 19일 오후 '아직 오지 않은 해방, 조선여자근로정신대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광주시민센터 강연을 진행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이젠 어른이예요

광주향교는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만 20세가 되는 남녀 19명을 초청, 유교 의식에 따른 성년례를 개최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광주향교 등 성년의 날 맞아 축하행사

제36회 성년의 날을 맞은 19일, 광주 시내 곳곳에서 축하행사가 열렸다.

광주향교는 올해 만 20세가 되는 19명(남자 5명·여자 14명)을 초청, 성년례(成年禮)를 치렀다.

성년례는 주례 입장을 시작으로 관자(冠子·남성)·계자(?子·여성) 입장, 상견례, 삼가례(三加禮), 축사 술을 내리는 초례(醮禮), 자(字) 일러줌, 성년선언, 절하기 순서 등으로로 진행됐다.

조선대 인문과학대학은 교내 서석홀 4층 대강당에서 성년례를 갖고 인문대 소속 191명의 학생들에게 관을 씌워주고, 비녀를 꽂아줬다. 성년례에 이어 성년 대표 양성록(사학과 1)·윤귀옥(한문학과 1)씨가 결의문을 낭독했다.

광주시 서구청은 관내 각 동에서 올해 만 20세가 되는 34명을 추천받아 구청으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복지법인 권동식아벤티노재단의 후원으로 장미꽃과 문화상품권을 전달받았다. 또 서구청은 4천107명의 관내 모든 만 20세 성년에게 축하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조선대 최성렬(철학과 교수) 인문과학대학장은 "태어남 그 자체보다는 삶의 과정을 중시한 전통사회에서는 20세가 되어야 비로소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받았다"며 "성년으로서의 책임감과 아울러 긍지를 일깨워주기 위한 성년례 의식을 통해 한 사람의 인격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시-해고자측, 시민단체협 중재안 수용

## 광주시청 청소용역업체 해고자 문제 조만간 해결

1년여 동안 타결점을 찾지 못했던 광주시청 청소용역업체 해고자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단협)는 19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시와 청소용역직 해고자 양측이 한발씩 양보, 시단협이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23일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철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와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이영원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박광태 광주시장과 면담, 해고자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에 따라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 위원장이 그동안 민노총과 청소용역직 해고자의 잦은 시위와 집회에 대한 유감의 뜻과 함께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했다"며 "박 시장이 직업을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청소용역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동안 해고 근로자와 이들을 대변한 공공서비스 노조는 그동안 원직(광주시청) 복직만을 요구한 반면 광주시는 '청소용역직 문제는 법률적으로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원칙론을 주장, 팽팽히 맞서왔다.

이번 시민단체의 중재 과정에서 해고자와 시는 원직 복직 대신 유관기관 취업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소 등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청사관리 용역업체의 직원 17명은 지난해 3월8일 시와 용역업체간 계약만료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었고 1년이 넘도록 시청 앞 등 광주 곳곳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27일 민방위 훈련

## 지진·해일 대피 훈련

제366차 민방위의 날 훈련이 27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 읍 단위 이상 지역에서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 훈련으로 실시된다고 소방방재청이 19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SKX)과 연계해 15일 열리던 민방위의 날 훈련을 27일로 옮겨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 훈련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가 전국에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하면 시민들은 즉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지진이나 해일 발생을 가상해 대피해야 하며 차량 통행도 중단된다.

/연합뉴스

# 'U-페이먼트' 기반 구축 착수

## 광주시, 글로벌에스티앤 컨소시엄과 시행 협약

광주에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유-페이먼트'(U-Payment) 기반 구축 사업이 착수됐다.

광주시는 19일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글로벌에스티앤 컨소시엄과 유-페이먼트 기반구축 사업 시행 합의서 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에스티앤 컨소시엄에 참여한 글로벌에스티앤네트웍스, 남양건설, 신한은행, 진흥건설 등은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 법인을 만들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법인은 총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유-페이먼트 카드 발급을 비롯해 광주 지역의 공공기관,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유통·소매점 등에 단말기를 보급, 유-페이먼트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산 및 충전,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시는 각 대중교통 운영기관들과 합의를 거쳐 유-페이먼트 시스템 설계와 구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 뒤 하반기부터는 시민들이 전자 지급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 주식의 30%를 기부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유-페이먼트 환경을 구축해 광주를 전자금융 중심 도시로 육성하고 유통·소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